



박태원 교수의

꽃교를 보는 인생

해마다 5월이면 새삼스레 인간을 보려고 주위를 살핀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이 이어지면서 화들짝 놀란 심정으로 가족을 보는 눈길에 온기를 싣고, 스승 인연들의 은덕을 환기하며 높이 떠있던 마음을 겸허하게 내려놓는다.

인간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염색체에 새겨진 생물학적 번식 욕구의 표현이요, 그 필연적 산물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생물적 본능을 넘어서는 인간 특유의 문화적 선택일까. 개인의 삶과 가족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하는가. 불교는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또 어떤 가르침을 보태는 것인가.

“박 선생님, 이 편지 좀 읽고 선생님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신여년 전, 한술 밥 먹던 미국 청년이 편지 한 통을 불쑥 내밀었다. 불교에 매료되어 한국에서 출가 준비를 하던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편지였다.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자수성가한 그의 아버지는 비록 상식적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건강하고 합리적인

하는 아들이다. 아버지의 솔직한 비판에 아들은 곤혹스러워 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세속의 상식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수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의 얄은 생각을 깨우쳐 주는 답장을 쓰겠습니다. 한 농부로부터 왜 당신은 농사 지어 먹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리를 알려 주겠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 생각을 전했다. “이번에는 굳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법문으로 간직하고 감사의 글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길은 시은(施恩)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수행인에게 너무나 훌륭한 법문이 아니요? 그나저나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처럼 속내 생각을 주고받는 모습이 신선하오. 아직 가부장적 권위가 행세하는 한국 가정과 비교되는군요.”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가 한 참 후

한국인과 가족

인생관을 펼치고 있었다.

“나는 너의 선택과 인생 행로가 어떤 것일지라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금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현재 내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이해도 어렵고 수긍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까지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까지 가족과 사회는 너를 보살폈다. 이제 너는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게 한 사회에 보답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너는 진리 탐구라는 명분으로 또 다시 남의 도움에 의지하는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진리 탐구를 위한 노력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선택한 진리 탐구의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왜 선량한 동양인들의 시혜에 의존하며 생활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받은 시혜만 해도 갚기 어려운 정도인데, 왜 다시 전적으로 시혜에 의존하는 생활을 구도라는 미명 아래 선택하고 있는가? 구도도 좋지만 네 생존은 이제 네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랑

강한 가족주의적 연대

개인주의의 고독 녹여

다시 말을 이었다. “박 선생님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인은 한국 가정의 오호러 신념입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이 바로 한국 가정입니다. 미국 가정의 토대인 개인주의가 어떤 것인지 박 선생님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가정은 그 개인주의의 고독을 녹여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한국인들 자신은 오히려 그 점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점이 퇴색하지 않고 더욱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강한 가족주의적 연대와 개인주의적 분열, 개인의 고독을 극복하는 가족적 대아(大我)와 자치 절려드는 폐쇄적 가족 이기주의의 빛, 그 빛 갈리는 미로에 우리는 서있다. 무아(無我)와 연기(緣起)의 지혜가 출구로 인도한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부처님 그리며 가르침 되새긴다

참불자의 길 사불(寫佛)

불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불교적 신앙의 내용을 암묵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사람들이 쉽게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화는 불탑, 불상, 불경 등과 함께 불교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까닭에 예로부터 경전의 말씀을 한자 한자 옮겨 쓰는 사경과 더불어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는 사불(寫佛) 또한 불교 수행법의 하나로 전해왔다.

종이와 먹이 귀했던 시절에 사불은 화승(畫僧)의 불화 불사에 시주를 함으로써 동참하는 행태로 이뤄지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불자들이 직접 사불을 할 수 있도록 사찰 특별법회나, 영가천도제 등에서 이 사불수행을 활용하고 있다. 또 신심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여가시간을 이용해 불화교실을 찾아 불화그림을 직접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나

고 있다. <증일야합경>에도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려 모시거나 채화하여 불화로 장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면 해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불도를 이룬다.”라며 사불의 공덕과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불화는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 벽화, 탱화, 경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탱화가 주류를 이룬다. 벽화는 말 그대로 사찰 건축물의 벽면에 그려진 불화를 뜻하고, 탱화는 넓은 비단이나 종이, 삼베 등에 그려서 벽면에 걸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경화는 대장경 판본에 새겨져 경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연하는 내용의 판화다. 손으로 쓰여진 사경의 앞이나 중간 부분에서 삽화적 기능을 하는 불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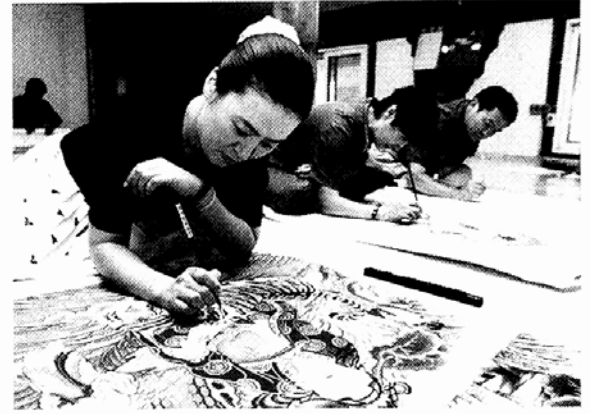
실제로 화승들은 불화의 밑그림이 되는 초(草)를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바친다. 처음 그려보려는 불화도 그려볼 수 있도록

을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림을 보고 3천장을 그리고, 그림을 보지 않고 3천장을 그려야만 제대로 된 초가 완성된다 한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사불의 원력은 깊고 원대한 수박에 얹는다.

<반야심경> 사경과 지장보살 사불(寫佛)을 통해 불자들에게 사경과 사불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 온

사경 못잡은 수행방편 불화교실 체계적 교육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은 “사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문화센터 등의 불화교실 등을 찾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 속에서 수행으로 삼아 활용하면 된다”면서 “지장보살 뿐 아니라 연꽃, 비천상,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을 그리고 거기에 색까지 입으면 더없이 수승한 공덕이 될 것



◆신심을 고취하는 방편으로 불화교실을 찾아 직접 불화 그리는 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라고 말했다. 불화그림기는 불교문화센터(02-703-0101), 조계사 불화그림기강좌(02-720-1390), 동방불교대(02-763-0229)나 삼화불교대(02-511-2026) 불교미술과 등에 배울 수 있다.

불화교실을 찾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자들이라면 여시야문 등 불교 서점에 나와 있는 사불책을 활용하거나, 불보살이 그려져 있는 책본과 얇은 종이, 붓 펜을 마련해 집에서 직접 해도 된다.

사불 의식은 사경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불을 시작하기 전에 주위환경을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호흡을 가다듬는다. 합장하여 간단히 삼배를 올리거나 개경계를 읽는다. 마음을 모아 한 붓 한 붓 정성껏 붓을 옮겨가며 부처님을 그린다. 사불을 마친 다음 합장하고 모든 생명들을 위해 부처님께 발원한다. 완성된 사불은 모아서 불전에 올린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ia.com)



'서장' 통한 선 공부 ⑬

부추밀에 대한 답사(2)

지혜 안 갖추고 정서적 만족만 좇으면...

“대개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오래도록 번다한 세간사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에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잠깐이라도 가슴 속에 일이 없어지면, 곧 여기에 집착하여 구경의 안락처라 여긴다만, 이것이 홀로 쫓을 잠시 놀러 온 것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소식이 끊어짐을 느끼겠지만, 뿌리는 여전히 있으니 어찌 적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적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생멸 속에서 공장 한 번 뒤쳐나와야만 합니다.”

참선 공부란 근본을 확실히 파악하여 분명한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정서적인 만족감이 아니다. 정서적 만족감은 일종의

쾌감으로서 번뇌와 마찬가지로 피해야 할 것이지, 믿고 의존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확고한 지혜를 갖추지 못하고 정서적 만족감을 좇아다니면, 감각적 쾌락을 좇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개 처음 선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번다한 일상을 떠나서 고요한 산사나 선방에 앉아 정진하다보면, 일순 잠념이 없어지고 고요히 가라앉은 행복의 느낌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다 다시 번잡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느낌의 기억만 남아 있을 뿐, 여러 경계에 흔들리는 것은 이전과 다를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맑고도 맑아 놀려 놓은 동안에는 풀이 나오지 못하다가 풀을 치우면 풀이 다시 솟아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단지 주위의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의하여 유도되

나 스스로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을 마취시킴으로써 맛볼 수 있는 하나의 경계일 뿐, 생각의 구속을 벗어나 경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선공부의 올바른 결실이란, 요컨대 만 가지 경계의 임미정정(一味淸淨)한 본성을 보아서 한번 크게 쉬어버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에야 비로소 번잡한 곳에 있으나 고요한 곳에 있으나 한결같이 담담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것은 특정한 느낌이나 견해에 의지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맑고도 맑아서 아무 경계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일부터 헤아리지 않아도 대하는 경계 마다 아무 의심이 없고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아리려고 하여도 해

아릴 수가 없고, 힘들어 이해하고 알려는 마음이 억지로 생기지도 않는다. 모든 일이 한결 같으므로 그저 담담할 뿐이다.

“그래야 텅텅 만공도 움직이지 않고서도, 긴 강을 저어서

공장 우유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때에 따라 놓고 불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와서, 스스로와 남을 이롭게 함에 베푸는 일마다 울지 아니함이 없을 것입니다.”

견성을 하여 바른 안목을 가지는 것은 무엇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세계와 나는 지금 존재하는 이대로가 전부이다. 이대로의 세계, 이대로의 나는 그대로 완전하여 아무 문제도 없다. 변화시킬 무엇이 없는 것이다. 만약 나와

세계를 부족하게 여기고 무엇인가를 바꾸어야 한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분별심에 기인한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여 무언가를 바꾸어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세간의 일일뿐이고, 깨달음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이다.

진리의 안목을 통하여 보면, 무엇이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하나 하나가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강물과 우유가 아무 차이가 없고, 흙먼지와 황금이 꼭 같다. 그러므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취하고 버리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자재할 수가 있으며, 모두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울지 아니함이 없다. 물론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옳고 그르다는 생각도 없다.



김태원 부스대 강사·철학

제31차 전국어린이지도자 연수회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미래

귀의 삼보하루고
제 31차 전국어린이 지도자 연수회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합니다.
금번 연수회에서는 기본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연수회 진행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 지도자의 양성과 여름불교학교 교재의 적극적인
활용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연수회 안내

연 제 : 불기 2545년(2001년) 6월 2일(토) 오후 6시 - 6월 3일(일) 오후 1시 (1박 2일)

어디서 : 속리산 유스타운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신청방법 :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전화접수 - 본회 사무국 (051) 808-4569

접수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참가비 납부 : 접수 후 입금(실명확인 관계로 송금 후 꼭 연락바랍니다)

송금계좌번호 : 우체국 601310-01-001351 (예금주 : 조중현)

연수 참가비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비고
예약접수	35,000원	45,000원	
당일접수	38,000원	48,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중병	20,000원	25,000원	

※ 해외거주자는 무료

과정별 운영방법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레크레이션(1과정)	상담교육(1과정)
대상	연수회 2회 이내참가자	연수회 3회 이상 참가자 연수회화 이내 참가자로서 스님	연수회 3회 이상 참가자 연수회화 이내 참가자로서 스님
방향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전문적인 지도자의 양성으로 어린이 범회의 활성화	아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담이론과 문제아동 상담방법을 이해하여 불교적 관점에서 조망
교육내용	지도자의 마음 가짐, 레크레이션(만남의 시간), 여름불교학교교재 활용(여름 불교학교 준비에서 마무리, 만들기, 설법과 괴리), 찬불가와 율동 등	범회에서의 만남의 시간, 인간관계훈련(심성개발과 관계개선), 실내게임의 실제, 공동체놀이 한마당, 찬불가와 율동 등	아동의 심리, 상담의 기본이론, 문제 아동 상담1(아동의 문제 행동 이해), 문제아동 상담2(문제행동대응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에 쓰면
특전	기본과정 수료증 지급	(사)한국여기교육협회에서 과정 수료증 수여하며 겨울연수 2과정을 수료 후 소정의 자격검정을 이수하면 레크레이션 자격증이 수여됨	이번 연수의 1과정 및 겨울연수 2과정을 이수하면 불교상담개발원이 수여하는 수료증이 주어짐
정원	제한없음	선착순 100명	선착순 100명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 2 기

연꽃 어린이 기자를 모집해요

연꽃은 어린이 여러분의 천진한 마음을 실은 어린이 불교 잡지입니다. 우리는 연꽃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바르게 가꾸고 꿈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참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다니는 절이야기, 나의 주장, 친구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해 연꽃지를 예쁘게 꾸며갈 어린이 기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방법 : 불교어린이법회 회원 4·5·6학년중 각 어린이회별 2명 이내(어린이회에서 선발하여 추천바람)
- 모집마감 : 2001년 5월 26일(토)
- 보낼 것 : 사진 2매(반 명함 3×4), 자기소개서(원고지 3매 내외)
※ 자기소개서 뒷부분에 학교, 학년, 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록할 것
- 발표 : 어린이회와 개인에게 알리고 연꽃 7월호에 발표
- 보낼 곳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2 성원서면주차빌딩 205호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연꽃 편집부
- 문의 : 051-808-4569, 4570
- 혜택 : 연꽃 어린이 기자는 기자활동과 함께 연꽃잡지를 무료로 받아보게 되며 각종캠프나 어린이 기자 연수에 참가하게 됩니다.